

#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이리형' 청운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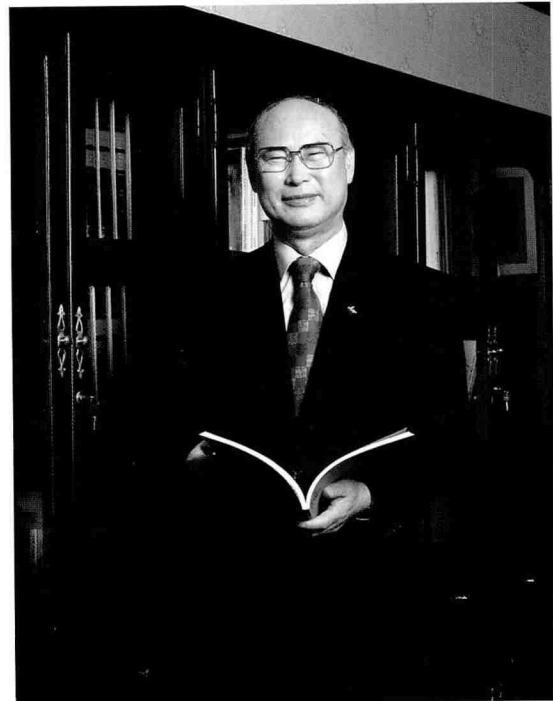
**Q.**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소감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영광스러운 건축문화대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 주변에서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와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더욱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라는 분부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30여년간 대학교수로서 연구와 인재양성에 헌신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최근 건축교육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급변하는 건축환경과 WTO체제로의 세계적 추세는 이미 우리시장에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대한건축학회장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이 '건축학 교육인증원'입니다. 더불어 '건축공학인증원'을 국제규준에 맞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우리 건축교육이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함입니다. 스포츠,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의 공통점은 시장의 개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건축환경이 당장 완전개방에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면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교육이 인증된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제공된 시스템에 시간과 공을 들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내용(contents)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건축교육에 우리 고유의 문화(culture)와 기술(technic)을 전통(tradition)과 상상력(imagination)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Q.** 건축과 '교수'로서 인재양성관과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인재양성관을 들고 싶습니다.



**A.**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만 두 분의 역할은 때론 공유되면서도 분리되어 있지요. 인재를 키우려면 편모 또는 편부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자세로 인격을 두루 강조하며 제자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에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강조 하였지요 그런 가운데 인격적으로는 모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특히 건축은 혼자서 할 수 없는 협업에 의한 부분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총장이 되서는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수로서 재직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부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이 저에게는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의 역할이 교수, 부총장 그리고 총장으로 변화 하였을 뿐이지 인재 양성에 대한 철학의 바탕은 같다고 봐야 합니다.

**Q. 일생을 한국의 건축구조 발전에 헌신하여 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원래 건축과에 입학 했을때는 건축설계를 통해 멋있는 건물을 설계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이 부분보다는 구조에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유학 시 우연히 고층건물에 관련된 연구테마를 받은 탓도 있습니다만, 이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초고층건물의 구조설계나 시공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실험연구에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귀국 후 이런 이유에서인지 40대초에 63빌딩 구조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선 바람과 지진하중을 몇 년 주기로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해석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지? 여의도의 모래 지반 위에 기초형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이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일본으로 지도교수를 찾아가 의논하고 국내기술진의 많은 지도와 협력으로 처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한국의 초고층건물 설계나 시공 시에는 이때 새로 도입된 기술들

이 폭 넓게 활용 되었지요. 그 예로 후판 60mm 이상 두께의 용접방법, 기초의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 외벽의 Mock-up시험 방법, 풍동실험 방법, 지진력의 정적·동적해석 도입 등이 있지요.

여하간 이런 연유로 건설교통부에서 초고층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의뢰 받아 연구한 결과를 130층의 건물에 활용하여 발표한 것이 최근 여러 초고층건물에서 설계에 조금이나마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큰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자로서 후배 건축인과 후학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제가 건축에 입문하여 보내온 시절에는 그 나름대로의 우리세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또 해야 할 연구와 후학을 기르는 일들에 정열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요즘은 풍요 속에서도 더욱 힘든 건축환경을 부인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외부환경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습니다. 또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목표를 항상 품고 세계적인 규모에서 경쟁력이 있는 젊은 후배 건축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신체적 대응함을 갖춘 우리 후배들은 이제 외국과 당당히 맞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해야 합니다.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 선배보다 나은 후배를 보는 것은 세상 큰 기쁨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희망이 제 자신만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주인이 되어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터뷰\_백민석/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이리형 청운대 총장 약력

· 1941	경기도 부천 출생	· 1995~2004	미국 UIUC에 STRESS연구소 설립/국제 공동연구 · SEminar etc.	· 2006.12	청운대학교 제4대 총장으로 취임
· 1964~1964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	· 1994~1999	한양대학교 부총장(R&D담당)	<b>수상경력</b>	
· 1964~1966	ROTC 2기 육군공병장교	· 1996~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창립 정회원 / 명예회원	· 1992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상
· 1967~1968	일본 닛켄설계(주) 구조부원	· 1998~현재	대한상사 증재원 증재위원	· 1995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상
· 1968~1970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0~2002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재단 지정 전국우수 연구센터(SRC/ERC) 소장 협의회 부회장, 회장	· 1997	국민훈장 동백장, 한양대학교 한양공로상, 미국콘크리트학회 학술공로상
· 1970~1974	동대학원 공학박사	· 2002~현재	미국 콘크리트학회(ACI), Fellow	· 1999	한양대학교 우수연구업적증, 한국전산구조공학회 공로상, 대한건축학회 우수 발표 논문상, '99건축문화의 해 공로상
· 1974~1975	동경대학 공학부 연구원	· 2001~현재	Honorary member, Hungarian Academy of Engineering	· 2000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상
· 1975~197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구원	· 2004~2004	Co-chair, Council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2004 Seoul Conference	· 2001	자랑스러운 한양건축인상
· 1977~2006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교수	· 2004~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2003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로상
· 1978~2000	대한주택공사자문위원	· 2004~2006	한국건축연합회 공동대표	· 2004	한국강구조학회 작품특별상
· 1980~현재	대한건축학회 이사(연구담당), 부회장, 참여이사(현)	· 2004~2006	대한건축학회 회장	· 2005	한국구조물진단학회 특별상
· 1980~1985	63빌딩 구조설계	· 2004~2006	한양대학교 부총장(서울 Campus)	· 2006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상
· 1989~1991	청와대 건설자문위원	· 2004~현재	한국제진면진협회 부회장, 회장(현)	· 2007	한국지반공학회 특별상
· 1990~1998	한국전산구조공학회 감사, 부회장, 회장	· 2005~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1990~2002	한국콘크리트학회 이사, 부회장, 회장	· 2005~현재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건조물 문화재 분과)		
· 1991~1994	AC(미국콘크리트학회) 한국지부 이사, 회장	· 2006~현재	건설의날 포상후보자 평가위원회 위원장		
· 1993~현재	한양대학교 ROTC 총동문회 회장, 고문(현)	· 2005~현재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위원회 위원		
· 1997~현재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발전위원				
· 1993~1994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및 건설연구소 초대소장				
· 1994~2003	과학기술부 구조시스템연구소 지정 초대형구조시스템 연구센터 소장				